

※ 중세 러시아 문학의 첫 300년, 키예프 루시 시대의 큰 흐름

I. 시대 구분과 문학의 조응
II. 글쓰기와 문자성의 방향
III. 주요 작품과 메시지

I. 시대 구분과 문학의 조응

: 키예프 루시 시대, 첫 300년의 문학 (10세기 말 ~ 13세기 초반), (“vertical & social bond”)

1. 중세 러시아 문학의 발생 (10세기 말 ~ 11세기 초반) - 키예프 루시의 세례와 문자 도입

맛닿는 역사와 ‘기록’의 시작	『지난 세월의 이야기』
성 블라디미르의 기독교 도입(988)	『루시 땅 기독교 전파에 관한 이야기』
보리스와 글렘의 죽음(1015)	『보리스와 글렘의 이야기』

2. 키예프 루시 문학 (11세기 중반 ~ 12세기 초반) - 키예프 루시의 전성기

현공(賢公) 야로슬라브의 통치(1019~1054)	대주교 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관한 슬로보』(1049~51), 투로프 주교 키릴의 설교문(1160년대)
류베치 회의(1097)	키예프 동굴수도원 및 바깥에서의 여러 성자전 집필, 『보리스와 글렘의 생애전』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통치(1113~1125)	연대기 『지난 세월의 이야기』 3차 편집 (1118)

3. 봉건 분할 시대의 문학 (12세기 후반 ~ 13세기 중반) - 키예프 루시의 갈등기

봉건 공후들의 반목 절정	『이고리 원정기』(1187?)
몽골 제국 바투의 키예프 루시 침략, 멸망 (1239~1240)	『러시아 땅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 『바투에 의한 라잔 점령 이야기』
성스런 땅, 그 곳으로의 여정	『수도원장 다닐의 순례기』
튜튼 기사단의 서쪽으로부터의 침략(1241)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

II. 글쓰기와 문자성의 방향

: 종교성과 역사성이라는 큰 주제의식 하에 사회적 문제와의 긴밀한 ‘내적 연관’이라는 중세 동슬라브(러시아) 문학 특유의 경향이 잘 드러났으며, 그러한 경향의 노정은 i) 연대기(лето-пись), ii) 생애전(агиография), iii) 교회설교문(слово), iv) 성지 순례기(хождение), v) 여러

찬가(слово), vi) 사회성과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여러 다른 작품들(сказание, повесть, слово) 등의 발생으로 결정되었다.

1. 연대기는 루시 땅의 역사를 성서의 첫 장면과 연결시키며 종교적 정통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으로 기술되어 나갔다. 철저히 집권 엘리트와 공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수도원의 수도승들에 의해 집필, 편집되었으며, 속세의 모든 '헛된' 일은 결국 신의 진리의 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의미론을 넓은 배경으로 깔고 있었다.

2. 생애전은 성인들의 성스런 생애를 신에게 찬양하며 또 그러한 성인들의 삶을 속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종교적 규범처럼 '교육'의 목적도 띤 채 역시 수도원에서 생성되었다. 또한 생애전은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로서 중세인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준 텍스트이기도 하다.

3. 교회 설교문은 러시아 교회 자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러시아인 대주교의 첫 작품으로부터 시작해 1) 러시아 교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 여러 종교적 축일과 제일에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며, 3) 설교문 작성자들인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수사학과 신학적 지식과 진실한 신심을 축적토록 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4. 성지 순례기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직접 순례를 다녀오며 자신의 신심을 시험하고 또 그런 선택받고 복된 경험을 고국 땅의 동포들에게 전하려는 고위 종교 성직자들의 영적 여행이었다.

5. '찬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르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러시아어 단어를 그대로 음차해 표기하는 '슬로보(слово)'는 은근히 매우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소(小)장르 규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설교문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 또한 다른아닌 슬로보라는 이름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규정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칭송과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주제론을 함의하지 않더라도 장중하면서도 격식과 예의와 일종의 용량을 갖춘 진지한 글쓰기는 '찬가'라고 옮겨질만한 슬로보라는 규정어로 표기되는데, 이는 사실상 근대 문학의 엄정한 장르 개념과 분화가 정착되지 않은 중세 시대의 자연스런 현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장면이다.

6. 마지막으로 사회성 강한 작품들은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인 제재로 삼아 기존의 형식에 녹여내는 방식이다. 키예프 루시 시대의 작품으로 예를 들 수 있을만한 것으로 중세 러시아 문학 전체를 통털어 가장 완성도 높은 단 하나의 작품을 꼽으라고 할 때 만장일치로 선택되는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와 『죄수 다닐의 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학인 연대기가 승리자, 지배자의 관점에서 쓰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연결을 강하게 암시하는 전경(前景)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직결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이 부류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고리 원정기』는 키예프 루시 시대,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는 암묵적 동의를 서서히 무시되고 깨어져나가던, 그리하여 루시인들의 영광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그 불안한 전조가 일부 통찰력있는 사람들에게 포착되던 12세기 후반, 체르니고프 공국의 이고리 스바토슬라비치라는 한 공후의 남부 유목민족에 대한 큰 의미없는 원정과 그 패배, 그리고 포로 생활과 루시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키예프 루시에 대한 점증하는 외적의 위협에 과거의 단결과 승리의 영광을 되살리자라는 심히 애국적 파토스의 작품이다. 그러나, 그 조금은 뻔할 수 있는 애국적 파토스를 녹여내고 구현해 내는 익명의 작가의 역량은 심히 그 당대를 초월하는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 구구절절 언급된다, ...